

해부실습에 참여한 의과대학생이 작성한 추도문의 구조와 유형

이준기¹, 김형태², 유효현³

¹전북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 과학교육연구소, ²전북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³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Structure and Types of Eulogies Written by Medical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Dissection Practice

Jun-Ki Lee¹, Hyoungtae Kim², Hyo Hyun Yoo³

¹Division of Science Education, Biology Major, Institute of Science Educatio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²Department of Anatomy, College of Medicine, Jeonbuk National University
³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College of Medicine, Jeon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 For medical students, dissection practice is a process that provides not only medical knowledge but also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the dignity and ethics of lif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structure and types of eulogies written by all medical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dissection practice course and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students formed with body donors. A total of 144 second-year medical students participated, and the eulogies written on the first day of dissection practice were collected and subjected to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The common structures in the eulogies written by medical students were (1) gratitude, (2) statement of facts, (3) self-introduction, (4) recognition of importance and value, (5) pledge, and (6) gratitude and remembrance. In addition, the eulogies were divided into four types: (1) letter-type to the deceased and bereaved family, (2) diary-type, (3) declaration-type, and (4) literary writing-type. The eulogy shows the influence of medical students' perception of donors and their ethical and emotional aspects. Therefore,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used to strengthen ethical reflection in the anatomy class and improv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Keywords : Cadaver dissection training, Medical students, Eulogy, Structure, Types

서 론

기본의학교육과정의 시작은 정상적인 인체의 구조를 배우

저자(들)는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저자(들)는 이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Received: April 26, 2025; **Revised:** May 16, 2025;

Accepted: May 29, 2025

Correspondence to: 유효현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E-mail: hhyoo@jbnu.ac.kr

는 해부학 관련 과목들이다. 그중 시신을 직접 해부하는 해부 실습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해부실습은 학생들이 인체의 구조를 이해하는 학문적 목표 외에 시신을 처음 직면하는 경험을 통해 인간의 생명, 존엄성에 대해 사고하게 하고,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한 가치관을 갖추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1]. 의과대학들은 해부실습의 학문적, 인문학적 목표를 위해 시신을 기증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 송고함을 실감하고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부실습 첫

날 또는 해부실습 시작 전에 추모식을 실시한다. 추모식을 진행하는 과정이나 방식은 대학마다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인 것 중 하나는 추도문을 학생대표가 낭독하는 과정일 것이다.

추도문은 일반적으로 특정인의 죽음에 대해 공동체 내에서 고인의 상실을 알리고, 그로 인한 슬픔을 표현하며, 고인의 일생을 평가하고 드러내는 일과 관련된 글을 의미한다. 추도문은 다섯 가지 특징을 가진다[2]. 첫째, 추도문은 고인의 죽음이라는 사건과 그의 생애에 대해 조명하는 텍스트이다. 고인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기점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의 생애를 되돌아보는 방식으로 작성한다. 둘째, 추도문은 고인이 사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작성 및 낭송되는 시의적이고 일회적인 텍스트이다. 셋째, 추도문은 고인의 업적이나 생애에 대하여 연대기적으로 기술하는 방식의 텍스트이다. 추도문은 고인의 생애를 재조명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그의 삶을 탄생(시작점)에서 사망(끝점)이라는 사건 사이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추도문에 제시하는 고인의 생애에 관한 내용에는 출생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 학업, 직업 등과 같은 고인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이력들을 소개한다. 넷째, 추도문은 고인의 삶 전체를 함께 돌이켜보면서 그가 공동체에 끼친 영향을 생각해 보도록 하는 평가적인 텍스트이다. 추도문은 고인이 생전에 남긴 공과(功過)를 두루 되짚어 보는 형태로 구성된다. 다섯째, 추도문은 상실의 안타까움이나 고인의 훌륭한 업적에 대한 칭송을 담은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감정적인 텍스트이다. 추도문은 고인을 잃은 상실이 주는 슬픔에 대해 표현을 하지만 절제되고 제한적인 수준에서의 안타까운 감정 표현이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추도문을 작성하거나 낭독하는 상황과는 전혀 다른 해부실습이라는 경험 속에서 작성한 의과대학생들의 추도문에는 어떠한 구조와 유형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해부실습 교육과정운영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해부실습 과정을 이수하는 일개 대학의 의예과 2학년 144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시신을 직접 해부하는 시작 단계에서 시신에 대한 경건함 등을 갖고 실습에 임할 수 있도록 추도문을 모든 학생이 작성하도록 하였다. 추도문을 작성하는 형식이나 틀을 제공하지 않고 학생 스스로 저마다의 자유로운 방식으로 작성하였다.

2.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해부실습에 직접 참여한 학생들이 작성한 추도문에 대한 질적 연구이다. 모든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에 기반한 생각과 감정들을 자필로 직접 자유롭게 작성하여 서면화된 자료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추도문은 작성과 낭독으로 이어지는 해부실습 수업의 과정이며, 추도문은 과제물이 아니므로 평가대상이 아닌 점을 안내하였다. 해당 강좌의 담당교수자는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일환으로 추도문이 분석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렸다. 모든 학생들은 해부실습에 앞서 해부실습에 임하는 생각과 감정, 자세 등을 담은 추도문을 작성하였는데, 추도문의 내용이나 형식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육하지 않은 상태로 자유롭게 작성하게 하였다.

3. 자료분석

연구에 사용된 추도문은 해부실습 첫날에 의과대학생들에 의해 수기로 작성한 것으로 연구를 위해 모두 전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과정은 연구자들에 의한 반복적인 검토와 비교 분석과정을 거쳐 의미 단위로 범주화하였다. 첫 단계로 의과대학에 재직하지 않는 교육학 전공자인 연구자가 외부자의 시선을 통해 먼저 1차 분석을 한 뒤, 의학교육을 전공한 또 다른 연구자가 해당 내용을 재분석하고, 마지막으로 해부실습을 직접 지도한 교수자인 해부학 전공 연구자가 마지막으로 맥락적 질적 검토를 하는 순으로 순환적 분석을 수차례 실시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도출된 구조와 유형들에 대한 의미 범주들에 대한 초안을 구성하고, 수차례의 세미나를 거치며 수정과 보완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도출된 주제들을 사례들과 함께 제시하였다.

결 과

1. 의과대학생 해부실습 추도문의 구조

1) 의과대학생의 추도문에서 나타나지 않는 구조

일반적인 추도문의 구조는 크게 ① 사망 사실의 언급, ② 애도 및 상실감의 표현, ③ (고인의) 행적 및 업적 회고, ④ 이별 고하기로 구성되지만, 해부용 시신이라는 형태로 첫 대면하게 되는 상황에서 작성한 의과대학생들의 추도문과는 구조나 내용 등에 차이가 나타났다.

첫째, 학생 추도문에는 일반 추도문의 ‘사망 사실의 언급’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다. 고인의 사망 사실에 대한 언급은 일반 추도문 형식의 글에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자신의 앞에 놓인 시신이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알지

못하고 그들과 교류한 적이 없다. 따라서 사망 사실은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 사건이고, 추도문의 내용을 듣는 집단 역시 함께 해부학을 공부할 동료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학생 추도문 속에서는 일반 추도문의 ‘상실감의 표현’ 부분도 나타나지 않았다. 학생들은 가까운 누군가를 잃은 슬픔을 애도하기 위하여 추도문을 쓴 것이 아니므로 자신들의 개인적 상실감은 표현하지 않았다. 이러한 표현 양상은 사망 후 시신의 형태로 마주 서게 된 학생과 기증자 사이에는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셋째, 학생 추도문에서는 일반 추도문의 ‘고인의 행적이나 업적 회고’를 서술하지 않았다. 학생에게는 기증자의 인적 사항, 이력 등을 제시해주지 않기 때문에 일반 추도문의 핵심인 고인의 삶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학생 추도문에서는 일반 추도문의 ‘이별 고하기’와 관련된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다. 추도문을 쓰고 있는 순간이 떠나보내는 이별의 순간이 아니라 만남의 순간이므로 일반 추도문의 구조와는 반대로 생각해야 하는 역설적인 추도문을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의과대학생의 추도문에서 나타나는 구조

일반적인 추도문과는 달리 의과대학생들이 작성한 추도문에서는 상황맥락적 특이성으로 인해 관찰되는 구조가 나타났다(Table 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감사 인사

① 기증자 본인에 대한 감사와 미안함

학생 추도문의 시작은 표현 방식은 다소 차이는 있으나 자신들이 해부실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근본적 상황 제공을 해 준 시신기증자에 대한 감사 인사로 시작한다.

송고하신 정신으로 소중한 신체를 기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연구참여자 SH]
 먼저 귀중하신 몸을 아낌없이 기증해 주신 고인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시작하겠습니다.[연구참여자 KJ]
 차갑디차가운 곳에만 계시다가 드디어 밝은 빛을 보게 되었으나, 또다시 차가운 칼날을 당신의 몸에 닿게 하여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연구참여자 JY]

추도문에서 가장 먼저 제시되는 첫 문장으로서의 감사 인사는 글 전체의 목적과 정체성을 부여하는 문장으로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문장이다. 특히 연구참여자 JY의 경우처럼 단지 감사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송구스러움, 즉 미안한 감정이 함께 느껴지는 것을 표현하였다. 기증자를 향한 감사와 미안함은 추도문의 종결 부분에 다시 표현하는데, 이

Table 1. Classification of the structure of the student eulogy

<p>1. Gratitud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Gratitude to the body donor (the deceased) b. Gratitude to the bereaved family <p>2. Statement of fact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Statement of the fact that the donor donated his/her body b. State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ody donor and oneself c. Commemoration of the body donor’s achievements <p>3. Self-introduction</p> <p>4. Importance and valu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Statement of the importance of dissection practice in medicine b. Statement of the importance and value of dissection practice to the medical student c. Statement of the importance of the act of body donation <p>5. Pledg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Pledge of one's own attitude and posture b. Statement of oneself as a future doctor <p>6. Remembranc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Gratitude to the deceased b. Expression of remembrance and condolences to the deceased

는 학생 추도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심감정이라 할 수 있다.

② 유가족에 대한 감사

기증자 본인이 뜻한 바 있더라도 유가족의 동의가 없다면 의학 연구 및 교육용으로의 시신 기증은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렵다.

기증해주신 분뿐만 아니라 유가족분들도 결정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연구참여자 BT]
 어쩌면 장례를 치르고 다시 한번 장례를 치러야 하는 노고에도 불구하고 고인분들의 용기와 결정을 지지해 주신 유가족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연구참여자 LE]
 우선, 유족분들께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연구참여자 DH]

이러한 상황을 학생들은 인식하고 있으므로 학생 추도문 속에는 기증자 본인에 대한 감사 인사에 뒤이어 기증자의 뜻을 지지해 준 유가족에 대한 깊은 감사를 함께 표현하는 구조가 나타났다.

(2) 사실의 언급과 존경의 표현

① 기증자의 기증 사실에 대한 언급

학생 추도문 속에서 기증자의 기증 사실 자체에 대한 언급을 감사 인사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냈다.

해부실습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시신을 기증해 주신
[연구참여자 BT]

일반 추도문에서는 추모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정보를 사실 그대로 제시한다. 그러나 학생 추도문에서는 시신기증자 본인의 자세한 신상정보를 알기 어려우므로 유일한 배경정보인 기증 사실로부터 추도문의 배경 사실을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냈다.

② 기증자와 자신의 관계 언급

일반 추도문의 경우와는 달리 시신의 모습으로 처음 만나게 되는 특별한 관계를 표현하였다.

고인과는 일면식도 없는 예과 2학년 학생일뿐인 저에게
[연구참여자 BT]

얼굴도 이름도 몰랐던 고인분이 시신을 남겨주시며
[연구참여자 KM]

아무리 돌아가신 후라지만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의대생들을
위해 [연구참여자 PJ]

추모 대상과의 관계를 생전의 일화를 중심으로 언급해 나가는 일반 추도문과는 달리 자신이 고인과 서로 모르는 관계임을 강조하고 있다. 자신과 개인적 관계가 없음을 강조하면서도 기증자의 기증 행위가 위대하므로 학생들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관계적 표현을 사용하였다.

③ 기증자의 업적 추모

일반 추도문에서는 추모 대상자의 생전 업적에 대한 추모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는데,
당신이 떠나시고 세상을 위해 온몸을 내어주신 분 ...
(중략) ... 다른 사람의 미래를 위해 눈을 감고도 회생하신
당신의 정신을 본받아 [연구참여자 KA]

생전에 어떤 분이셨는지는 몰라도 분명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을 분인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연구참여자 LG]

수천만의 목숨을 살릴 거룩한 희생 [연구참여자 JY]

그러나 학생들은 기증자가 생전에 한 행위 중 가장 용감하고 존경받을 만한 행위인 시신 기증이라는 행위 자체를 하나의 위대한 업적으로 생각하고 추도문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을 하신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러한 분이셨을 것이다’(예; 연구참여자 LG)라는 방식으로 자신이 보지 못한 기증자의 생전 삶에 대한 상상과 추정을 하는 표현도 나타냈다.

(3) 자기소개

학생 추도문에는 독특하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이 나타났다. 시신을 단지 해부실습을 위해 제공되는 교구로 대하지 않고, 존엄한 하나의 인간으로 대하는 마음을 내면화하는 것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과대학 예과 2학년에 재학중인
○○○입니다. [연구참여자 BT]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 저희 의예과 학생들
[연구참여자 KM]

의학에 대해 이제 막 첫발을 내딛은 저희 [연구참여자 DH]

‘나’를 소개하는 것은 ‘너’라는 타자를 청자로 존중한다는 점을 가정하기 때문에 기증된 시신과의 만남을 통해 본격적인 의학공부의 첫걸음에 만난 사람 또는 환자로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다.

(4) 중요성과 소중함에 대한 강조

① 의학 차원에서 해부실습의 중요성 언급

학생 추도문에는 의학이라는 학문적 차원에서 해부실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나타났다.

글과 사진만으로 복잡한 인체의 기능을 모두 숙지하는 데는
분명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CH]

의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해부학 [연구참여자 KM]

의사가 되기 위한 첫 관문 [연구참여자 DH]

학생들은 의학 전체에서 보편적으로 해부학이 중요하고 필요한 학문이며, 의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분은 수사적으로 기증자의 기증 행위가 더욱 가치 있게 보일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부분이다.

② 학생 차원에서 해부실습의 중요성과 소중함 언급

학생 추도문 속에서 의학이라는 학문적 중요성 외에도 자신이 느끼는 질실함과 소중함을 표현하는 부분도 나타났다.

저희에게 오늘은 의학도로서 한 걸음 내딛는 의미 깊은 날입니다.[연구참여자 BT]

그동안 배웠던 의료지식을 바탕으로 실습을 해볼 수 있는 귀한 기회[연구참여자 BT]

저희 의대생들에게 카테바 실습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과정입니다.[연구참여자 JH]

학생들은 학습자로서 자신의 학업에 해부실습이 얼마나 중요한 과정인지를 개인적 수준에서 언급하고 있었다. 자신에게 소중한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주관적 소감을 함께 제시하는 부분이다.

③ 기증 행위의 중요성 언급

학생 추도문 속에는 해부실습을 할 수 있도록 시신을 기증해 준 행위에 대한 중요성도 언급하고 있다.

의과대학 학생들을 위해 시신을 기증하신 선택이 새삼 대단하게 생각됩니다.[연구참여자 BT]

생전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학생들에게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자신의 신체를 기꺼이 내주신 숭고한 정신을 항상 잊지 않겠습니다.[연구참여자 KM]

만약 나왔다면 사랑하는 사람 혹은 나의 시신을 기증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연구참여자 DH]

시신기증 행위로 해부실습이라는 학습을 할 수 있게 됨을 깨닫는 순간이며, 동시에 만약 자신이라면 기증 행위를 실천에 옮길 수 있을지 성찰해 보는 과정이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배우는 의학이 결국 기증자의 숭고한 ‘기증 행위’라는 토대 위에 이루어짐을 성찰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5) 다짐

① 자신의 자세와 태도에 대한 다짐

해부실습 과정에 대한 학생의 학업적 태도에 대한 다짐이 담긴 부분이 나타났다.

○○○님이 사람이었던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실습 중간중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어 ... (중략) ... 가버워지지 않겠습니다.[연구참여자 BT]

학생들은 해부실습 과정에서 감정적 혼란을 경험하며, 심신상의 불편함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갖게 되는 상황들이 있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 BT의 사례처럼, 해부

실습 과정에서 자칫 흐트러질지 모르는 자신을 다잡고 기증자가 나와 같은 ‘사람’이었음을 잊지 않게 해주는 자기충족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과 같은 부분이 나타났다.

② 미래의 의사로서의 자신에 대한 언급

학생 추도문에는 미래의 의사가 될 자신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이 나타났다.

후에 좋은 의사가 되어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연구참여자 BT]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의료인이 되겠습니다.[연구참여자 KM]

진심으로 환자를 생각하고 다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깊이 느끼는 의사가 되겠습니다.[연구참여자 DH]

‘학생으로서의 나’가 아닌 미래에 ‘의사(의료인)가 된 나’라는 측면에서 일반 추도문에서 사람들이 고인의 뜻을 본받아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학생들은 시신기증 행위를 통해 전한 강력한 유지를 받들어 타인에게 도움과 행복을 주고, 진심으로 환자를 대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느낄 수 있는 훌륭한 의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계기의 표현으로 일반 추도문과 차이가 있다. 추도문을 작성하고 낭독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전문직업성 가치를 내면화한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1].

(6) 감사와 추모

① 고인에 대한 감사

학생 추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기증자에 대한 감사를 분명하게 다시 표현하는 부분이 나타났다.

다시 한번 고인의 선택에 감사드립니다.[연구참여자 BT]

마지막으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참여자 KM]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연구참여자 DH]

글을 줄이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합니다.

[연구참여자 DH]

추도문의 시작 부분과 마찬가지로 고인에 대한 감사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하려 하는 구조가 나타났다.

② 고인에 대한 추모와 조의 표현

학생 추도문의 마지막 부분에는 단순한 감사 인사 이외에

도 고인에 대한 정중한 추모와 조의의 표현도 나타났다.

故 ○○○님의 명복을 빕니다.[연구참여자 BT]
 실습이 끝난 후에는 차갑고 숨 막히는 이곳에서 벗어나서
 양지바른 곳에서 편히 잠드시길 바랍니다.[연구참여자 KM]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길 바랍니다.[연구참여자 DH]

2. 의과대학생 해부실습 추도문의 유형

사전에 표준화된 특정 형식을 주지 않고 자유롭게 작성한 의과대학생들의 추도문을 분석한 결과, ‘고인과 유가족에게 쓰는 편지형’, ‘일기형’, ‘선언문형’, ‘문학적 글쓰기형’의 네 가지 유형이 나타났다(Table 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고인과 유가족에게 쓰는 편지형

‘고인과 유가족에게 쓰는 편지형’은 일반적인 편지글의 형식을 갖춘 추도문으로 글의 시작을 자신의 소개로 시작하거나 혹은 편지를 받는 사람으로 기증자의 실명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유형이다.

안녕하세요. ○○대학교 의예과 학생 ○○○입니다.
 해부학 실습에 들어와 뼈를 만질 때까지만 해도 의과대학 학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몰랐었는데, 오늘 기증하신 시신을 마주 보니 많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중략) …
 제가 의과대학 학생으로서, 나아가 의사로서 살아갈 때에도 좋은 의사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성찰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벗어나 제가 좋은 의사가 되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올림 [연구참여자 BT]

故 ○○○ 님과 14분의 고인분들께
 차갑디차가운 곳에만 계시다가 드디어 밝은 빛을 보게 되었으나 또다시 차가운 갈날을 당신의 몸에 닿게 하여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중략) …

실습이 끝난 후에는 차갑고 숨 막히는 이곳에서 벗어나서

양지바른 곳에서 편히 잠드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 올림 [연구참여자 BT]

편지글형은 살아 있는 사람에게 대화하듯 몰입하여 감정을 내면화할 수 있다. 따라서 편지글형의 추도문은 살아 있는 진짜 사람을 하듯 자신의 앞에 놓인 시신에 대해 존재론적 의미부여를 할 수 있다. 힘든 해부실습 과정 중 편지글과 같은 형식의 추도문을 쓰고 공개적으로 읽는 행위를 통해 자기 내면화와 공개적 선언을 이중적으로 경험하며, 자신의 앞에 놓인 낯선 대상과의 관계 맺기를 성찰해 볼 수 있다[3].

2) 일기형

학생 추도문 중 두 번째로 확인된 유형은 일기와 같은 형식이었다.

2022년 9월 16일 첫 카데바 실습을 갔다. 사실 실습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게, 시신의 체모를 정리하고 시신에 곰팡이가 피지 않게끔 약품처리를 한 게 전부였다. 시신과 마주하기에 앞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기증하고 떠나신 고인분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으로 추모실, 추모실을 지나가는 짧은 시간 동안 나는 수많은 기증자의 이름을 눈에 담아보았다.
 …(생략) [연구참여자 BT]

연구참여자 BT의 추도문의 경우와 같이 전형적인 1인칭 시점에서 자신의 경험과 그에 따른 감정의 변화를 작성한 형식이다. 일기형식의 추도문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추모와 감사의 마음을 내면화하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선언문형

학생 추도문 형식 중에는 일종의 선언문 유형도 나타났다.

이런 실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자기 몸을 기증해 주신 고인분은 저희 학습에 있어서 함께 하시는 스승님이라 여기고, 경건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의 숭고한 정신은 앞으로 잊지 않고 공부를 하면서도 후에 의사가 되어서도 올바른 의료인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참여자 JH]

당신이 남긴 고결한 마침표, 우리의 펜으로 잇겠습니다.
 [연구참여자 BT]

살아오신 발걸음들 작은 육신에 담겨, 재 되지 않으시고 차가운 바닥에 스스로 누셨으니 그 깊은 뜻 받들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연구참여자 BT]

Table 2. Types of eulogies written by medical students

1. Letter-type to the deceased and bereaved family
2. Diary-type
3. Declaration-type
4. Literary writing-type

고찰

학생이 자기 삶을 반추하고 학업과 진로를 성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개인 사명 선언서는 반성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를 촉진하여 개인의 신념과 가치관, 삶의 목표에 대해 재평가해 보고 의미를 공고히 하는 시간을 제공해준다[4]. 선언형 추도문은 자신이 앞으로 어떤 신념을 갖고 의학을 공부할 것이며, 미래에 어떤 의사로 성장해 가야 할지에 대한 자신의 학업과 진로에 대한 바람직한 미래상을 표현하는 유형이다.

4) 문학적 글쓰기형

학생 추도문 중에는 문학적 글쓰기 방식의 추도문 유형도 나타났다. 이러한 글쓰기 형태에서 다양한 문학적 수사가 나타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은유(metaphor)이다[5]. 은유는 서로 먼 대상 사이의 연결을 수사적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신체적 경험이 없는 대상에 대해 주관적으로 경험한 세계의 감정과 인식을 제공해준다. 따라서 문학적 글쓰기형의 추도문에서 사용한 수사법으로서의 은유는 자신이 경험해 보지 않은 낯선 과정인 해부실습과 실습용 시신인 카테바에 대해 자신이 이미 경험한 유사한 상황과 연결지어 주는 표현이다.

여기 가정과 국가에 헌신한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아무개이다.
그는 여느 사람들과 같이 집에서 가족들과 화목히 지냈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도 성실히 하였으며,
일과 시간에는 평범하게 일에 치이면서 정말 바쁘게 살았다.
그리고 태어났을 때 받았던 모든 걸 돌려주고
다른 사람과 같이 무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의 정신은 우리에게 남아서 우리의 양분이 되었다.
그의 이름은 아무개이지만 아무개이기 때문에 더욱 빛이 난다.
아아, 그 누가 그를 아무개라고 부르겠는가.[연구참여자 BT]

고인분께서 종교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짧은
기도문을 하나 읊어드리려 합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자세로 실습에 임하겠습니다.
고인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연구참여자 BT]

문학적 추도문 유형의 학생들은 자신이 처음 대하는 시신을 존경하고 감사해야 할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과정은 은유라는 수사적 장치를 통해 잘 표현되고 있으며, 문학 작품이나 종교적 표현 등을 통해 이미 느껴 본 생각과 감정을 불러일으키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의과대학생들이 해부실습 첫날에 직접 작성한 추도문을 수집하여 그 구조와 유형을 탐색하고, 학생들이 기증자를 어떻게 인식하며,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추도문의 구조는 (1) 감사 인사, (2) 사실의 언급, (3) 자기소개, (4) 중요성과 소중함 인식, (5) 다짐, (6) 감사와 추모 등으로 나타났으며, 추도문의 유형은 (1) 고인과 유가족에게 쓰는 편지형, (2) 일기형, (3) 선언문형, (4) 문학적 글쓰기형의 네 가지로 분류되었다.

추도문의 전반적인 구조에서 공통적인 특성이 나타났다. 먼저, 해부실습 시작으로 시신을 처음 접하는 해부실습이 학생들에게 여러 단계의 감정적·윤리적 변화를 유도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감사 인사’와 ‘사실의 언급’은 학생들이 기증자의 희생과 해부실습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자기소개’와 ‘중요성과 소중함 인식’에서 학생들은 실습을 통해 얻게 될 지식과 경험이 자신의 학문적 성장과 직업적 정체성 형성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다짐’과 ‘감사와 추모’는 해부실습을 통해 느낀 감정을 정리하고, 자신의 윤리적 가치관과 연결하여 의사로서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과정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부실습이 생명 윤리와 인간 존중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과정임을 시사한다.

추도문 글의 시작과 끝이 일관되게 고인에 대한 감사 표현이 나타났다. 즉 학생들로 하여금 해부실습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내면화하기 위한 추도문 작성과 낭독은 좋은 교수학습 장치로 판단된다.

추도문이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를 다짐하는 시간의 흐름에 의한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고인의 과거와 업적 등을 상상하거나 시신기증 업적을 칭송하고, 고인과 자신의 관계 등 과거의 맥락과 현재 학문적 배움과 자신의 학습에 중요성을 표현하였다. ‘학생으로서의 나’라는 인식과 ‘미래에 의사가 될 나’라는 자신에 대한 이중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내적 성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추도문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유형별로 기증자에 대한 태도와 관계 설정 방식에 차이가 나타났다. ‘고인과 유가족에게 쓰는 편지형’은 기증자의 희생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기증자를 인간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그들의 가족에게 감정을 이입하는 특징을 보였다. ‘일기형’은 해부실습 과정에서의 개인적 감정을 표현하며, 자신의 윤리적 가치관과 태도에 미친 영향을 성찰하는 모습을 강조하였다. ‘선언문형’은 기증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미래 의료인으로서의 다짐을 강조하는 형태로, 직업적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문학 적 글쓰기형’은 시적이거나 종교적 표현을 통해 해부실습의 의미를 예술적으로 형상화하며, 경험한 정서적 영향을 표현 하였다.

해부실습이 학생들에게 단순한 해부학적 학습을 넘어 윤리적·정서적 차원의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해부실습 과정에서 모든 학생이 추도문을 작성하고, 추도문 낭독으로 매시간 해부실습을 시작하는 교수법은 학생들의 윤리적 성찰을 강화하고, 기증자에 대한 존중과 의료인 으로서의 태도를 함양하는 중요한 교수법이라는 점을 확인 했다. 해부실습 과정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성찰 활동을 포함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중요하다[1]. 따라서 해부실습 과정에 서 추도문을 바탕으로 그룹 심층토론을 진행하거나 실습 과 정에서 경험한 윤리적 고민을 공유하는 시간 등을 제공하는 교수법도 학생들의 윤리적 태도와 전문직업성 등을 형성하 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해부실습 과정에서 학생들이 기증자를 인간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해부실습 진 행 과정에서 변화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윤리 교육이 실습 초반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실습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3]. 학생들이 해부 실습을 진행하면서 기증자를 점차 대상으로 여기게 되는 현 상을 완화하기 위해 해부실습 중간에도 기증자에 대한 존중 과 윤리적 태도를 환기할 수 있는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실습 중 정기적으로 짧은 성찰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실습 지도교수자가 윤리적 태도와 관련된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6]. 교수자는 학 생들이 추도문을 작성할 때 추도문의 구조와 유형,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가이드 등을 제시하는 데 본 연구 결과를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특정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연구 결과를 모든 의과대학에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학생들의 감정과 인식 변화를 장기적으로 추적하지 못하였으 며, 해부실습 이후의 경험이 윤리적 태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 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확대하고, 해 부실습 전후의 윤리적 및 정서적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 는 종단적인 형태의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1. He YR, Park JH, Kim J, Lee JH. Participation of memorial ceremony affects student attitude on gross anatomy practice. *Anat Biol Anthropol*. 2020;33:21-5.
2. Cho KH. Eine textlinguistische analyse der textsorte nachruf im Deutschen. *Koreanische Zeitschrift fur Germanistik*. 2006; 47:310-31.
3. Yoo HH, Chung DH, Lee JK. Between my first patient and a training aid: A study on the thoughts and emotions of medical students in the course of human anatomy practice. *JLCCI*. 2021;21:487-500.
4. Nam S, Song J, Ha K. A content analysis of mission and vision statement of NGOs: focusing on Korean international develop-ment NGOs. 2023;18:237-73.
5. Yoo HH, Shin SS, Lee JK. Medical students' metaphorical representations of life and death. *JLCCI*. 2019;19:175-200.
6. Choi GY, Kim JM, Seo JH, Sohn HJ. Becoming a doctor through learning anatomy-narrative analysis of the educational experience. *Korean J Phys Anthropol*. 2009;22:213-24.

간추림 : 의과대학생들에게 해부실습은 의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생명의 존엄성과 윤리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부실습 과정에 참여한 모든 의과대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추도문의 구조와 유형을 탐색하고, 학생들이 시신기증자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의예과 2학년 학생 144명이 참여하였으며, 해부실습 첫날에 작성한 추도문을 수집하여 질적 내용 분석을 수행하였다. 의과대학생들의 추도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는 (1) 감사 인사, (2) 사실의 언급, (3) 자기소개, (4) 중요성과 소중함 인식, (5) 다짐, (6) 감사와 추모였다. 또한 추도문의 유형은 (1) 고인과 유가족에게 쓰는 편지형, (2) 일기형, (3) 선언문형, (4) 문학적 글쓰기형의 네 가지로 구분되었다. 추도문이 의과대학생들의 기증자에 대한 인식과 윤리적·정서적 차원에서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따라서 연구 결과는 해부실습 과정의 윤리적 성찰 강화와 교수·학습법 개선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찾아보기 낱말 : 해부실습, 의과대학생, 추도문, 구조, 유형